

한국 임부의 태교요인 - 동양 민속행위적인 임부의 자가관리 -

장순복* · 박영주** · 최연순* · 정재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건강행위는 개인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 신념 및 가치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문화적 신념과 가치는 의료 전문적인 처방보다 우선적으로 인간의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 사회 속에서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전반적 의료의 실무 서술은 이 실무들이 변화하는 관습과 사회적 구조 속에서 어떻게 공존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Janzen(1978)이 사하라 서부 아프리카 인종인 Kuranko 인종에 대한 문화 기술적 접근을 통한 연구에서 한 사회에서 대상자에게 행해지는 건강 관리는 대상자들의 토착화된 건강신념이나 행위에 근거해야 한다는 지적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즉 건강관리는 진공관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문화적 특성 속에서 수용 혹은 수정의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건강 관리인들은 이러한 토착적 신념과 행위를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간호 대상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서는 Ross(1991)도 지적하였듯이 우리 간호대상자들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 문화적 전통에 근거하여 현존하고 있는 다양한 건강관리 방식에 대한 전반적 검토 과정이 선행되어야 우리 고유의 건

강 증진을 위한 간호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대상자의 신념이나 가치가 내재된 문화적 행위가 간호에 포괄되지 못한다면 대상자들은 무시당했다는 느낌과 함께 일방적으로 강요된 느낌을 갖게 되며 불만족하게 된다. 이는 가히 문화적 인권이 무시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Leininger, 1991). 이같이 문화적 신념이 무시된 상황에서의 일방향적인 간호를 받는 대상자들은 동의나 공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처방을 수용하기 보다는 임의적인 건강행위를 할 수 있다.

특히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건강행위는 개별 사회의 문화적 신념과 가치가 특별히 강하게 반영되어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므로 임신, 분만 및 산육기 관리와 관련된 전통적 건강관리 방법의 현대적 재조명을 통한 대상자의 건강 증진 도모의 노력은 간호 영역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한편 태교는 임신중 태아와 임부를 위한 총체적 교육적 노력으로서 임부의 생리, 심리, 환경적 요소가 태아와 상호 작용된다는 통합된 개념에 근거하여 태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성장 발달적 도모를 꾀하는 것이다(사주당 이씨, 1796). 그러나 서양 의학 중심의 현대 의학에서 태교는 역사 속의 주술적 혹은 미신적 민속의 한 형태로 밀려나 객관화된 지식체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서양 의료 중심의 의료 제도 속에서 우리나라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간호사들 포함한 건강 전문가들은 인간 생애의 시작을 출생 이후로 간주하여 왔고 임신 9개월간의 생명체로서의 태아의 삶은 출생 이후의 삶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가정하여 왔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간호 대상자들은 태교의 과학적 검증 여부와 관계없이 경험적 증거에 의하여 임신중 어떠한 형태로든지 태교를 실천하고 있음을 태교 실천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 결과들은 보여주고 있다(김혜자, 1991; 김현옥, 1995; 이정섭, 1987; 조동숙, 1987; 최경옥, 1974; 최연순, 1995). 따라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임부간호 영역 내에서 태교 영역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깊은 관심과 재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조동숙(1987)은 현대 의학에서의 산전관리와 태교에 관한 비교연구를 한후 이 두행위는 철학적으로 태아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태교는 태아를 인격체로 인정하고 모체와 태아간의 상호교류를 중시하는데 비하여 산전 관리에서는 태아를 단순히 생명체로 인정하고 정상적인 성장과 생리적인 안정유지에 주안점을 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태교는 상호작용적 과정의 수준 이상의 차원에서 접근된 것으로서 태아의 성장뿐만 아니라 발달을 위해 기울이는 총체적 교육적 노력으로 정의된 바 구체적인 속성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태교는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교육학자들도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이지만 임부가 자신이나 태아를 위해 기울이는 행위에 따라 전혀 다른 건강과 성장발달 결과들이 뒤따르므로 임부간호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고유한 건강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간호 대상자들이 실행하고 있는 태교의 내용 및 의미를 확인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임으로 태교의 구성요소를 밝혀려는 시도는 모성 간호 영역에서 우리나라 임부의 건강행위 이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현대 한국의 임부들이 실천하는 태교의 구성 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임부들이 실천하고 있는 태교의 구체적 내용들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 즉 태교의 구성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태교에 관한 이해를 확장시키게 될 것이며, 간호 대상자의 관점에 기초한 문화중심적 임부 건강관리 전략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문헌 고찰

1. 태교

우리 문화권에서 거의 대부분의 임부가 하고 있는 태교는 우리 문화의 속성이 강한 민속적 건강행위로서 이는 우리의 사고, 의사결정, 행동을 이끄는 학습되고 공유되고, 전수되는 가치, 신념, 규범 및 생활모습중 하나이다(백명자, 1988; 유안진, 1992; 이동민, 1989; Leininger, 1988). 우리의 문화적 행위인 태교는 우리의 삶의 양식중에 대표적인 건강행위중 하나로서 우리 임부들의 생존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태교와 유사한 서양의 태아애착 개념은 임부가 태아와의 심리적 결속이나 어머니 역할 준비 측면에서 실시되는 행위로 설명되는데 이는 주로 심리적 관계를 중시하는데 비하여 태교는 심리적 요소이상의 성격이나 인격발달, 인지발달, 감성발달, 안전도모 및 생물학적 조절의 차원까지를 내포하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본다(사주당이씨, 소화 13년(1938); 유안진, 1992; 이동민, 1989; 임동근, 1986; Cranley, 1981).

태교는 임부와 태아를 위하여 기울이는 총체적 교육적 노력으로 정의된다. 태교의 근본철학은 태아를 성장 발달되는 인격체로 보고 있으며 태교의 가치는 '생후 10년간의 교육의 효과는 임신중 태아를 위한 열달간의 노력만 못하고 임신 열달간의 노력은 수태시의 아버지의 노력보다 못하다'(사주당 이씨, 소화 13년(1938)고 규정함으로써 태교를 통해 태아의 환경적 조절과 통제,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수정조건의 조절등을 통한 생물학적 유전적 통제와 조절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양의 어떠한 발달이론에 비할수 없이 포괄적이다. 사주당 이씨(1938)는 태교신기 언해에서 임부는 의도적으로 마음의 평정과 기쁨, 품위있는 몸가짐, 음식의 내용, 모양, 조리 방법등의 선별, 사물에 대한 신중한 판단, 아름답고 순화되는 정서를 위한 심미적 추구, 성인이나 위인들의 동일시, 취약한 감각적 자극의 통제 및 성적 자극등의 조절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주당 이씨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선인들의 경험적 자료를 종합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조연희(1993)가 현대 태교를 하고 있는 임부 1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태교의 정의는 '임부의 몸과 마음가짐', '임부와 태아와의 교육적 관계', '임부와 태아와의 상호작용' 및 '어머니로서의 적응과정' 등이었다.

태교는 남편과 가족전체 즉, 시부모, 친부모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가족이 전폭적으로 협력하여 참여한다는 점에서 가족적 노력이지만 임부 자신이 실천의 주체자이다. 태교는 임부가 태중 아기를 위하여 수행해야 할 주의사항을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이고 목적지향적인 교육적 노력이며, 태교의 수행 기간도 수태 이후가 아니라 임신이전에 임신을 계획하거나 예상하거나 기대하고 준비하는 시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태교를 어머니에만 국한하지 않고 아버지에게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태교를 심신이 건강한 아기의 수태와 태내 발달 및 출생을 위하여 부모가 될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부터 아기의 출생시까지 필요한 모든 총체적 노력으로 정의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권영철, 1972; 유안진, 1984; 이동민, 1984).

이와같이 수태시의 아버지의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태아의 유전적 소인의 통제까지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현대 서양의학에서 임부를 위해 지도되는 임부관리와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Cranley, 19981; Leifer, 1977).

태교는 동양문화권에서 중요시 되는 임부의 자가관리 행위로서 그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 동양문화는 사물이나 인간을 총체적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고, 관계하는 점에서 수량화되고 구체적으로 조작적으로 설명하려는 서양의 문화와는 다르다. 논리적으로 인간의 성장발달에 관한 유전론이나 환경론에 치우치지 않고 양가적인 관점이 통합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고유성을 볼 수 있다. 한편 서양의학에서 설명되는 임신중 태아관을 보면 모체와 태아간의 상호 교류에 중점을 두는 애착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Davis와 Akridge(1987)는 임신부의 태아애착 과정을 추론할 수 있게 하는 임부의 행위로는 임부가 자신의 배를 문지르는 행위, 태아와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외모와 태아가 죽었을 때 부모가 슬퍼하는 행위 등을 지적했으며, Leifer(1977)는 임부의 태아에 대한 감정적 개입을 설명하는 몇가지의 애착행위로 태아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태아를 애칭으로 부르는 것 및 남편이 태아의 움직임 느낄 수 있도록 임부의 복벽에 손을 대어보는 행위 등을 지적하였다. Cranley(1981)는 임부 태아 애착이 임부의 정체감, 태아 정체감 및 임부와 태아의 관계를 통합시키는 요소가 된다고 보고 모아 애착의 구성 요인으로 역할 획득, 자아와 태아의 분리, 태아와의 상호 작용, 귀속성(attributing character) 및 현신의 5가지 구성 요인으로 이뤄진 24문항의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서양에서는 임부와 태아의 관계를 생물학적 측면과 함께 심리적 과정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서양의 태아애착은 임부의 심리적 요소를 행위로 표현하고 있으며 과정중심적 수준인데 비하여 태교는 목적지향적으로 태아의 건강과 발달도모 행위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태교는 태아애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총체적 건강추구 행위임을 알 수 있다.

2 태아와 임부관리

최근에는 서양 의학에서도 임부 태아 관계를 단순히 모체와 태아간의 상호 작용 이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되고 있다. 이같이 무관심했던 영역인 태아기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조산아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고, 과학 기술의 발달로 배아 이식이나 인공 수정 등이 가능해 지고, 태아기의 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 초음파가 등장했고, 배아기의 급속한 신경계의 발달 및 태내의 구조와 기능이 출생 후의 생태와 관련된 실증적 자료들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이다(Smotherman & Robinson, 1988).

현대 심리학적 견지에서 볼 때 인간 발달은 연속적으로 점진적이어서 신생아가 출생시에 이미 감각 기능, 시력(Aslin, 1985), 언어 인식(Fifer & Moon, 1988), 선택적 집중(Rohrbough, 1984), 습관화, 부수적 학습(Bornstein, 1985), 사람의 얼굴 지향, 사람의 얼굴 표정(Meltzoff & Moore, 1985) 및 엄마 인지 능력(Balough & Porfer, in press)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에 이미 출생 전에 이러한 능력이 형성 발달되었기 때문임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태아는 임신기간에 신체적으로 성장되는 과정에서 복귀가 어려운 수많은 기형이나 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기능의 이상 등이 임신 초기부터 임신 제 1기에 발생되며, 신경계의 지배를 받는 운동 능력,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감각 능력이 발달되고, 태아는 임신 주수가 경과됨에 따라 주위와의 상호 작용 능력이 증대되어 간다. 그러나 아직 어떠한 감각적 자극이 태아가 이미 갖고 있는 특성을 더욱 촉진시키거나 발달시키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임상 실험과 동물 실험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태아에게 청각적 자극이 가해지면 태아는 눈을 깜빡거린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며(Eaton, 1984), 청각적 자극을 주면 태아가 얼굴을 찡그리는 반응이나 심박동의 변화를 초음파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었다

(Bernard & Sontag, 1947). 또한 임신 3기의 태아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임부의 하복부에 밝은 불 빛을 쬐이면 태아가 눈을 깜빡이고 촉각적 자극에 대한 반응도 입 주위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며 임신 3기에 양수 천자시 갑작스런 외부 자극에 태아가 놀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28주 이후에는 반복적인 자극 후에 놀람 반사가 감소됨이 확인되므로써 임신중에 태아가 이미 반복적으로 들었던 소리에 이같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습관을 형성하고 있음을 이미 국내에서도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임상 비디오 실험에서도 증명된 결과등을 미루어 설명할 수 있다(한국방송공사, 1984; Birnholz, 1984). 이외에도 태아는 분만전의 임부의 목소리나 기타 안정적 자극에 대하여 익숙해져 분만후의 지각 반응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Spencer & Decarper, 1987).

Levinson(1993) 역시 태아는 분만 이전에 이미 지각력과 감각력이 있는 존재로 발달되고 있는데 분만후 관찰되는 뚜렷한 반응의 형태들은 이미 초기의 자궁내에서의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유추될 수 있고 자궁내 태아 세계에서 경험한 일들은 그 아기의 인성 발달에 결정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자궁내 생활은 수수께끼로 남아있지만 내적, 외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태아의 행동과 신생아의 행동 발달은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인간의 행동은 중별 고유성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발달 과정에 어떤 요인이 작용되면 시간이 경과되는 동안 서서히 단순한 동작이 회환 작용에 의해 선택적 행동으로 연관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낮은 수준의 유치한 반복적인 동작은 의도적 자극에 의해 고상한 행동 유형으로 바뀌어 형성될 수 있어 결국 임신 말기와 분만 후에 이와같은 synergism에 의해 태아 행위가 발달된다고 보는 것이다(Bekoff & Kauer, 1984; Fentress, 1986; Thelen 등, 1987).

이와같이 서양 의학에서도 일고 있는 태아 이해를 위한 시도는 배아기 때부터 분만 시기 까지 태아로서 받은 수많은 자극이 얼마나 놀라운 차이를 초래하는가에 대하여 수세기에 걸쳐 사실로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태아를 위한 의도적인 노력의 타당성을 부분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생애에서 중적인 관점의 포괄적인 발달적 해석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서양의료 중심의 의료제도 속에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출생 이후부터 인간 생애의 시작으로 간주해 왔고 임신 9개월간의 생명체로서의 삶은 출생 이후의 삶과 전혀 무관한 것 같은 착각과 오해 속에

서 행동해 왔기때문에 임부의 건강 관리에서 대상자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이 임부간호를 지속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간호 대상자인 임부들은 태교의 과학적 검증 여부와 관계없이 경험적 근거에 따른 신념을 갖고 태교의 효과를 믿고 있으며, 태교를 실천하고 있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최경옥(1974)은 전체 130명의 대상자 중 '태교를 거의 실천했다'는 22.0%,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41.8%, '조심은 했으나 잘 안되었다' 35.4%, '전혀 실천하지 못하였고 믿지도 않았다'는 0.7%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수행한 태교의 영향에 대해서는 44%가 '출생후 자녀에게 영향이 많았다'고 응답하였고 34.6%는 '조금 있는 것 같다', 5.3%는 '전혀 없는 것 같다', 16.1%는 '모르겠다'로 나타나 78.6%가 태교의 영향을 자녀에게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 이정섭 등(1987)은 18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대상자중 51.1%가 '태교의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효과 없다'는 2.1%, '잘 모르겠다' 29.3%, '특별히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17.5%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고, 조동숙(1987) 역시 출산부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1%가 '태교의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90.4%가 '태교를 실천했다'고 보고하였다. 김혜자(1991)도 출산 부인 14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92.5%가 태교의 효과를 믿고 있으며, 78.2%가 태교를 실제로 수행했고 이중에서도 36.1%는 태교 수행을 잘했다고 스스로 평가하였음을 보고하였으며, 이들은 특히 92.3%가 '만약 딸이나 며느리에게 태교를 가르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이 실천했던 태교행위로는 착한 마음가짐, 적당한 운동, 언행의 조심, 음식, 약물 순이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태교신념을 보면 태교를 하면 태어나 임부의 심리적 안정, 인성발달 도모, 지적, 심미적 능력 향상, 건강보호나 안전등이 획득되리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었다(최연운 외, 1995). 이들 연구에서 제시되는 대상자들이 태교를 실천하는 목적을 보면, 태교의 목적은 '태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성격이 좋은(원만한) 아기를 위해', '건강한 아기를 위해', '태아와 임부와의 상호작용을 위해'서였다(조동숙, 1987). 이는 임부가 실천하는 태교는 현대의학에서 하는 임부나 태아의 신체적 건강, 심리적 안정유지 이상의 심성발달, 인격발달, 사회성 발달, 지능발달 등을 위한 총체적 노력을 경주했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인간의 성장발달 도모의 차원이라고 본다. 그러나 임신중 태교행위에 관한 조연자가 없다고 응답한 임

부가 25.7%이었고, 조연자가 가족이었다고 응답한 임부가 49.2%, 친지나 의료인이었다고 응답한 임부가 25.1%로 나타났는데 이중 의료인은 2.5%만을 차지하는 것(조동숙, 1987)으로 나타나 의료인들은 임부관리면에서 조연자로서의 역할수행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임부를 위한 임신중의 관리에 대한 전문적 정보가 필요함을 알수 있다. 이는 서양의 임부관리는 전문가의 진찰과 자가관리를 위한 임부교육으로 크게 구분되지만 의료인들은 주로 진찰측면인 임상검사, 골반검진, 태아의 생존적 사실이나 질분만의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태아심음 청진이나 복부촉진에만 집중하고, 교육 측면인 임부와 태아의 안전과 안정을 위한 임부교육, 활동과 휴식의 범주, 영양상태, 어머니로서의 역할준비, 개인위생법 등(Reeder, Martin & Koniak, 1992)을 다루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임부의 자가관리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제한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러한 논문들의 결과들을 일반화 시키는 데에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많은 대상자들이 태교의 효과를 믿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태교를 실천하거나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으나 태교 실천의 방향 및 타당성이 제시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Horsburgh & Foley(1990)는 민속학적 연구를 통하여 간호사는 대상자가 간호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돕고, 건강관리 체계의 변화를 최소화시키면서 자가관리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 하였듯이 태교는 임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임부관리로 통합하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모성간호의 주요한 대상자인 임부의 태교행위를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간호대상자인 우리 임부들이 현재 실천하고 있는 태교의 내용들이 무엇이며 이들을 이루는 구성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의 필요성이 고찰 되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현대적 한국태교의 구성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exploratory study)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원주, 대전,

전주, 광주, 진주, 제주 등 전국 10개 도시에 소재하는 종합 병원과 조산소에 임신, 분만, 산욕기 건강 관리를 위해 내원한 임신 10주 이상 분만 후 3개월 이내의 임산부 중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 목적을 이해하며, 연구 참여를 동의한 여성 9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태교의 구성 요인 확인을 위한 태교 질문지의 문항 작성은 문헌고찰내용, 20명의 임부와 산욕부와의 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통합하여 예비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다시 임부 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하여 문항 수정 과정을 거친 후, 예비 문항의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를 검증하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이뤄졌으며 구체적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로 본 연구자들은 선행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하여 전통 태교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였다.

2단계로는 면담을 통한 태교 질문지 문항 구성을 위하여 J시와 S시에 거주하는 임부와 산욕부 20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위해 이용된 질문의 내용은 '당신은 태교를 하고 있거나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이 태교를 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태교를 한 뒤 기대하는 태교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행한 태교 행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등이었다.

이상의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전통 태교 행위 중에는 현대 임부들에게는 그 타당성이나 합리적 근거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므로 상당 부분 수정된 태교가 실천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전통 태교와 현대 태교와는 행위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상의 단계에서 유도된 태교 행위는 135개였으며, 이를 다시 S도시와 J도시의 임부 20명에게 예비 조사한 결과 비과학적인 것으로 해석되어 거의 실시 되지 않는 40개의 전통 태교 행위 문항은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구성된 문항은 태교 권장 행위에 관한 35문항, 금지 행위에 관한 43문항, 태교 관련 특성에 관한 12문항 등 총 95 문항이었다.

3단계로는 예비 태교 질문지 문항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K대학과 Y대학의 석사 학위 소지 이상의 간호학 전공자 10인을 대상으로 문항의 동질성 확인과 내용 타당도 검증을 의뢰하였다.

문항 타당성의 정도는 '매우타당하다.' 5점, '거의 타당하다.' 4점, '타당하다.' 3점, '거의 타당하지 않다.' 2점

및 '전혀 타당하지 않다.' 1점으로 하여 내용 타당도 계수 (Index of Content Validity : CVI)를 산출하여 CVI 계수가 70%이하로 타당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 문항은 제외시켰으며, 동질적인 것으로 지적된 문항 역시 제외시켰다. 결과적으로 CVI 계수가 낮아 제외된 문항 수는 30문항이었으며, 동질적인 것으로 지적된 문항중 CVI 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10문항을 제외시켜 최종 문항은 55문항이 선정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완성된 태교 질문지의 응답 범위는 태교 권장 행위에서는 '항상 그랬다'에서부터 '전혀 그러지 않았다.'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금기 행위에서는 '항상 금하였다.'에서부터 '전혀 금하지 않았다.'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태교 실천 행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Alpha가 .94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1995년 2월 10일 부터 3월 30일 까지 50일간 지역별 집락 추출 방법에 의해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회수된 질문지는 956개로서 회수율은 79.7%였고, 이 중 불완전한 자료 46개를 제외한 910개의 질문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자료 수집에 앞서 각 병원이나 조산소의 기관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고 전화나 방문으로 구두 승인을 얻은 후 각 기관의 관련 간호사, 조산사가 직접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주어 자가 보고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대상자가 질문지에 응답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한 뒤 문항을 다시 응답하도록 하였다. 평균 질문지 완성을 위한 소요 시간은 15-20분 정도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딩 카드에 부호화 한 뒤 pc-SA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 범위를 구하였다.
- 나. 태교의 구성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Varimax 회전을 적용한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을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먼저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8.9세로 17세에서 48세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26세 이상 30세 이하가 55.0%(497명), 31세 이상 35세 이하가 24.3%(220명)이었다. 대상자의 학력은 고졸이 48.2%(437명), 대졸 이상

<표 1>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수 : 910명

특성	구분	수(명)	백분율(%)	평균
연령	25이하(세)	140	15.5	28.9(세) (범위 : 17-48세)
	26-30	497	55.0	
	31-35	220	24.3	
	36이상	47	5.2	
	무응답	6		
학력	무	3	.3	
	국졸	3	.3	
	중졸	21	2.3	
	고졸	437	48.2	
	대졸이상	442	48.8	
	무응답	4		
직업	직장에 나감	328	36.5	
	가정주부	463	51.6	
	기타	107	11.9	
	무응답	12		
종교	기독교	287	31.9	
	천주교	83	10.3	
	불교	152	16.9	
	무	342	38.0	
	기타	27	3.0	
	무응답	9		
가족형태	부부	682	75.2	
	부부+부모	107	11.8	
	부부+형제	53	5.8	
	부부+형제+부모	59	6.5	
	기타	6	.7	
	무응답	3		
월수입				158.9(만원) (범위 : 35-700만원)

이 48.8%(442명)으로 높은 학력 수준을 나타냈고 직업에 있어서는 가정 주부가 51.6%(463명)이었으며, 직장을 갖고 있는 경우는 36.5%(32명)으로 나타났다. 종교에 있어서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38.0%(3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31.9%(287명), 불교 16.9%(152명), 천주교 10.3%(8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는 부부 중심의 가족 형태가 75.2%(68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11.8%(107명)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수입은 15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범위는 35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지로 나타났다.

나.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2>.

본 연구 대상자의 임신 및 분만 기간은 임신 13주 이하가 .7%(6명), 임신 14주 이상 26주 이하가 3.5%(32명), 임신 27주 이상이 27.9%(252명), 분만 후에서 분만 3개월 이내가 67.9%(614명)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중 임신 기간 동안 배우자와 함께 있었던 경우는 92.0%(835명), 몇개월 동안만 같이 있는 경우가 4.0%(36명), 주말만 같이 있는 경우가 3.4%(31명), 계속 떨어져 있는 경우가 .7%(219명)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중 임신율 기다렸던 경우는 74.4%(691명)이었으며, 임신율 기다린 경우 기다린 평균 기간은 12.0개월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현재 임신이나 출산한 아기를 제외하고 출산율 경험한 횟수는 .63회였으며, 자녀수는 평균 .52명이었고, 평균 자연 유산 횟수는 .49회, 평균 인공 유산 횟수는 .09회로 나타났다. 임신 계획은 남편과 또는 가족과 함께 계획한 경우가 72.9%(653명)이었으며, 계획이 없었던 임신인 경우가 23.3%(208명)으로 나타났다.

<표 2>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 수 : 910명

특성	구분	수(명)	백분율(%)	평균
임신/분만기간	임신 13이하(주)	6	0.7	
	임신 14-26	32	3.5	
	임신 27 이상	252	27.9	
	분만	614	67.9	
	무응답	6		
임신중 배우자와의 거주기간	계속 함께	835	92.0	
	몇개월간 함께	36	4.0	
	주말만 함께	31	3.4	
	계속 떨어져	6	0.7	
	무응답	2		
임신기다림	예	691	77.4	
	아니오	219	24.1	
임신 기다린 기간				11.98(개월) (범위 : 0-144개월)
출산 횟수				.63(회) (범위 : 0-8회)
자녀수				.52(명) (범위 : 0-4명)
자연유산횟수				.49(회) (범위 : 0-4회)
인공유산횟수				.09(회) (범위 : 0-6회)
임신계획	혼자	34	3.8	
	남편과 함께	632	70.6	
	부모+기타가족	21	2.3	
	계획없었음	208	23.2	

2. 태교의 구성 요인

태교의 구성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태교 질문지의 문항을 중심으로 varimax 회전을 적용하여 주성분 요인 분석을 시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요인 분석 결과 유의한 요인 수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고유값의 크기, 인자의 공헌도, 카이제곱 적합도 검증, Scree 도형, 잔차 상관 행렬, 편상관행렬 및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과 SBC(Schwartz's Bayesian Criterion) 등이 있다(김기영, 전명식, 1989).

본 연구에서는 태교의 구성 요인 결정을 위하여 eigen value가 1 이상인 요인을 유의한 요인으로 선택하게 되는 Kaiser 규칙, scree plot 상에서 급격히 저하를 보이는 요인과 비교적 저하 정도가 완만한 요인에서 경계선을 그어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 및 이론적 의미의 관점에서 요인의 수를 결정한 결과 5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요인들의 명명 과정은 연구자들과 의미론을 전공한 교수 1인이 함께 검토한 후 문항들이 내포하고 있는 공통적 특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태아 심성 안정' '태아 인성 발달' '태아와의 교감' '태아 지성 발달' 및 '태아의 신체적 건강'으로 명

명하였다.

이들 각 요인의 eigen value와 설명 변량은 다음과 같다<표 3>.

<표 3> 태교의 구성 요인별 eigen value, 설명 변량 및 누적 변량

요인	요인 명명	eigen value	설명 변량	누적 변량
1	태아 심성 안정	13.03	23.7	23.7
2	태아 인성 발달	4.57	8.3	32.0
3	태아와의 교감	2.60	4.7	36.7
4	태아 지성 발달	2.23	4.1	40.8
5	태아의 신체적 건강	1.83	3.3	44.1

먼저, '태아 심성 안정' 요인의 eigen value는 13.03이었으며, 전체 변량의 23.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아 인성 발달' 요인의 eigen value는 4.57이었고, 전체 변량의 8.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아와의 교감' 요인의 eigen value는 2.60이었으며, 전체 변량의 4.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아 지성 발달' 요인의 eigen value는 2.23이었으며, 전체 변량의 4.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태아의 신체적 건강' 요인의 eigen value는 1.83이었으며, 전체 변량의 3.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5 요인은 전체 변량의 44.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요인에 높은 요인 적재치를 보인 문항과 각 문항의 요인 적재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요인인 '태아 심성 안정' 요인에 높은 요인 적재치를 보인 문항 및 각 문항의 요인 적재치를 보면 '음흉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7424), '동물이 교미하는 장면을 보는 것'(.7083), '남을 흉보거나 흉을 듣는 것'(.6847), '과음하는 것'(.6715), '나쁜 소식 듣는 것'(.6564), '더럽거나 애처로운 것을 보는 것'(.6329), '남을 꾸짖거나 오만한 말을 하는 것'(.6612), '제사집이나 상가집에 가는 것'(.6316), '몹시 허기지거나 음식을 과식하는 것'(.6271), '편식을 하는 것'(.6006),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는 것'(.5789), '야채, 과일 중 쌍으로 된 과일을 먹는 것'(.5746), '운명하는 사람, 죽은 시체를 보는 것'(.5576), '몹쓸 병 걸린 사람 보는 것'(.5435), '줄 끈을 넘어 다니는 것'(.5420), '문지방 막대기 등을 깔고 앉는 것'(.5383), '기형아 보는 것'(.5347), '살상하는 것을 보는 것'(.5141), '제사(상가) 집 음식을 먹는 것'(.5198), '음담 패설을 듣는 것'(.4201), 그리고 '쉽게 놀라거나 기

뻐하는 것'(.4072), '함부로 상스럽게 농담을 하는 것'(.4044)의 22문항이 포함되었다. 이들 문항들은 임부의 금기 행위를 통한 태아의 심성을 안정 보호한다는 측면의 내용들로 이루어 있다고 보고 '태아 심성 안정'으로 명명하였다. 각 문항의 요인 적재치는 .41에서 .74까지였다<표 4>.

<표 4> 태아 심성 안정요인의 태교 문항별 요인 적재치

문 항	요인 적재치
음흉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7424
동물이 교미하는 장면을 보는 것	.7083
남을 흉보거나 흉을 듣는 것	.6847
과음하는 것	.6715
남을 꾸짖거나 오만한 말을 하는 것	.6612
나쁜 소식 듣는 것, 뉴스포함	.6564
더럽거나 애처로운 것을 보는 것	.6329
제사집이나 상가집 가는 것	.6316
몹시 허기지거나 음식을 과식하는 것	.6271
편식을 하는 것	.6006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는 것	.5789
야채, 과일 중 쌍으로 된 것을 먹는 것	.5746
운명하는 사람, 죽은 시체를 보는 것	.5576
몹쓸 병 걸린 사람 보는 것	.5435
줄 끈을 넘어 다니는 것	.5420
문지방 막대기 등을 깔고 앉는 것	.5383
기형아 보는 것	.5357
제사(상가집) 음식을 먹는 것	.5198
살상하는 것을 보는 것	.5141
음담패설을 듣는 것	.4201
쉽게 놀라거나 기뻐하는 것	.4072
함부로 상스럽게 농담을 하는 것	.4044

제2요인인 '태아 인성 발달' 요인에 높은 요인 적재치를 보인 문항 및 각 문항의 요인 적재치를 보면, '나쁜 일을 대면할 때 상황을 좋게 해석하려고 하였다.'(.7314),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다.'(.7182), '나쁜 언행을 자제하도록 하였다.'(.7144),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였다.'(.6712),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려고 하였다.'(.6341), '선행을 하려고 하였다.'(.6121), '인내하려고 노력하였다.'(.5418), '성생활을 하는 것'(.5119), '벌레 먹거나 못생긴 과일을 먹는 것'(.4760),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하였다.'(.4189)의 10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문항들은 임부의 바람직한 행위의 실천을 통한 태아의 인성 형성 촉진이라는 측면의 내용들로 이루어 있다고 보고 '태아 인성 발달'로 명명하였으며, 각 문항의 요인 적재치는 .42에서 .73까지였다<표 5>.

〈표 5〉 태아 인성 발달 요인의 문항별 요인 적재치

문 항	요인 적재치
나쁜 일을 대면할때 상황을 좋게 해석하려고 하였다	.7314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다	.7182
나쁜 언행을 자제하도록 하였다	.7144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였다	.6712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려고 하였다	.6341
인내하려고 노력하였다	.5418
선행을 하려고 하였다	.6121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하였다	.4189
성생활을 하는 것	.5119
벌레 먹거나 못생긴 과일을 먹는 것	.4760

제3요인인 '태아와의 교감' 요인에 높은 요인 적재치를 보인 문항 및 각 문항의 요인 적재치를 보면 '배안의 아기를 위해 배를 만져 주었다.'(.6683), '배안의 아기가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6522), '아기의 모습을 상상해 보곤 했다.'(.6457), '배안의 아기와 이야기 하였다.'(.6263), '아기를 불러보곤 했다.'(.6081), '아기가 배 안에서 느끼고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5962), '임신했기 때문에 나 자신과 아기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4689),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거나 마음에 소원하였다.'(.4659), 그리고 '훌륭한 인품의 아기가 태어나도록 기도했다.'(.4359)의 9문항이 포함되었다. 이들 문항 들은 임부가 태아와의 식적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측면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태아와의 교감'으로 명명하였으며, 각 문항의 요인 적재치는 .44 에서 .67까지였다.〈표 6〉

제 4요인인 '태아 지성 발달' 요인에 높은 요인 적재치

〈표 6〉 태아와의 교감 요인의 문항별 요인 적재치

문 항	요인 적재치
배안의 아기를 위해 배를 만져 주었다.	.6683
배안의 아기가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6522
아기의 모습을 상상해 보곤 했다.	.6457
배안의 아기와 이야기 하였다.	.6263
아기를 불러보곤 했다.	.6081
아기가 배안에서 느끼고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5962
임신했기 때문에 나 자신과 배안의 아기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4689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거나 마음에 소원하였다.	.4659
훌륭한 인품의 아기가 태어나도록 기도했다.	.4359

를 보인 문항 및 각 문항의 요인 적재치를 보면 '태아를 위해 동화를 듣거나 동화책을 소리내어 읽어주었다.'(.6402), '노래를 불러 주었다.'(.6145), '좋은 책을 골라 읽었다.'(.6055), '좋은 그림을 감상하였다.'(.5878), '훌륭한 사람의 그림이나 사진을 보았다.'(.5524), '서예 또는 피아노 치기를 하였다.'(.5419),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였다.'(.5101), '좋은 음악을 들었다.'(.4731), '신앙 생활을 하였다.'(.4537), '순산을 위해 기도하였다.'(.3965), 그리고 '나쁜 말이나 생각을 하는 것을 피했다.'(.3497)의 11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문항들은 오관 을 이용한 감각적 자극을 통해 태아의 지성 발달을 촉진 한다는 측면의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태아 지성 발달'으로 명명하였으며, 각 문항의 요인 적재치는 .35에서 .64 까지였다(표 7).

〈표 7〉 태아 지성 발달 요인의 문항별 요인 적재치

문 항	요인 적재치
태아를 위해 동화를 듣거나 동화책을 소리 내어 읽어 주었다.	.6402
노래를 불러 주었다.	.6145
좋은 책을 골라 읽었다.	.6055
좋은 그림을 감상하였다.	.5878
훌륭한 사람의 그림이나 사진을 보았다.	.5524
서예 또는 피아노 치기 등을 하였다.	.5419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였다.	.5101
좋은 음악을 들었다.	.4731
신앙 생활을 하였다.	.4537
순산을 위해 기도하였다.	.3965
나쁜 말이나 생각을 하는 것	.3497

제 5요인인 '태아의 신체적 건강' 요인에는 '컴퓨터, T. V., 냉장고 등을 가까이 하는 것'(.7835), '배안의 아 기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육류와 채소를 신경써서 먹었다.'(.4173) 그리고 '타인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는 것'(.3487)의 3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문항들은 태아 의 신체적 건강에 해로움을 줄수 있는 상황을 피함으로 서 태아의 건강을 도모한다는 측면의 내용들로 이루어

〈표 8〉 태아의 신체 건강 요인의 문항별 요인 적재치

문 항	요인 적재치
컴퓨터, T.V., 냉장고 등을 가까이 하는 것	.7835
배안의 아기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육류와 채소를 신경써서 먹었다.	.4173
타인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는 것	.3487

저 있다고 보고 '태아의 신체적 건강 유지'로 명명하였다. 각 문항의 요인 적재치는 .35 에서 .78까지였다(표 8).

V. 논 의

본 연구 결과 태교의 구성 요인으로 '태아 심성 안정' '태아 인성 발달' '태아와의 교감' '태아 지성 발달' 및 '태아의 신체적 건강'의 5요인이 확인되었다. 이는 현재 임부들이 행하고 있는 태교의 내용들은 태아의 신체적 건강 보호 측면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발달을 도모하는 수준이상의 것임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조동숙(1987)이 태교연구를 통하여 태교는 임부태아의 상호작용으로 해석한 것에 비하면 본 연구 결과는 태교를 임부 태아 상호작용 이상의 좀더 다면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태교가 상호작용 이상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태교행위는 상호작용과 같은 상대적인 행위이기 보다는 임부가 태아의 발달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태아 발달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목적지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주장의 정당성의 근거는 실제로 태교의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나타난 설명변량에서도 추론 가능하다. 즉, 태교행위중 '태아 심성안정'과 '태아 인성발달'요인이 23.7%, 8.3%를 차지하여 이 두 요인이 태교의 32.0%를 설명하고 있을 만큼 비중이 컸다. 그리고 '태아와의 교감'이 4.7%, '태아 지성발달'요인이 4.1%, 그리고 '태아의 신체적 건강' 요인의 설명변량은 3.3%였다.

1. '태아의 신체적 건강'과 '태아와의 교감' 요인

'태아의 신체적 건강' 요인은 사실상 현대 서양의학적 임부관리의 주요내용(Reeder, Martin, & Konike, 1992)과 상응되고, '태아와의 교감'은 서양의 태아애착(Cranley, 1981; Davis & Akridge, 1987; Leifer, 1977)과 유사한 행위로 구성되었다. 서양의 임부관리에서 주로 포함되고 있는 신체 건강 도모와 심리적인 태아애착과 유사한 '태아의 신체적 건강'과 '태아와의 교감'은 각각 3.3%, 4.7%를 설명하여 합하면 12.0%라는 결과와 태교에서 서양의 임부관리 관점이상으로 부가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한 변량이 36.1%라는 결과를 볼때에 이 세 가지 요인은 태교의 고유한 속성이라고 본다. 이같이 고유한 태교요인은 주로 태아를 위

한 발달도모 행위(사주당 이씨, 1938; 이동민, 1984)라고 볼 수 있다.

2. 태아 심성요인

심성안정 요인에는 '음흉한 말이나 행동' '흉보거나 등물의 꼬미' '흉을 듣는 것' '과음' '나쁜 소식' '더럽거나 애처로움' '오만한 말' '제사집이나 상가집' '과식, 편식' '싸움' '쌍으로 된 과일' '시체' '중증환자' '줄 끈등의 장애물' '문지방 막대기' '기형아' '살상장면' '상가음식' '음담패설' '과다한 놀람이나 기쁨' '상스런 농담' '기피등의 22문항이 포함되었다. 이들 문항들은 임부가 심리적으로 자극받을 수 있는 행위의 금기를 통해 임부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태아심성의 안정을 유도한다는 관점의 행위들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보편적으로 임부가 받는 심리적인 압박요인들이 임부의 시상하부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임부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김구자, 황애란, 1986)는 과학적 자료만으로는 태아가 어떻게 심리적인 동일시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이동민(1984)은 태아는 모체내에서 상당히 고정된 시간 계획에 따라 발달하고 의식의 범위가 좁은 만큼 태아는 피취면자의 입장에 놓이게 되어 임부가 보고 듣고 느끼는 감정 상태가 하등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각 무의식에 잠재되어 출산후 성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3. 태아인성발달 요인

인성발달 요인에는 '상황을 좋게 해석함' '용서함' '인행자제' '좋은 생각' '인내' '선행' '바른자세' '성생활 억제' '상한 과일 기피' '용서' 등의 10개 문항이었는데 이 행위들의 특성은 모두 통제와 조정을 통한 긍정적 추구행위로서 '인격도야'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석된다.

유안진(1992)과 이동민(1984)은 태중교육은 산모가 교육 주체가 되고 태아가 교육 객체이나 교육 주체와 교육 객체가 출산 전까지는 동일하고 출산 후에야 분리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분리되기까지는 산모의 의식과 행동이 직접 태아에게 투영되고, 출산하여 분리된 후에도 태중에서 받은 영향이 간접적으로 투사되어 자기생명을 전개하여 가는 인생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태교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는 임신부를 안전하게 하여 산모의 위험을 줄여주게 되어 이상

적인 태아의 발육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태아를 건전하게 한다는 임상실증적인 경험을 하였음을 평생동안 범 죄자를 다루었던 이동민(1984)은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서 태교는 인간의 출생이전부터 실시하는 소위 선천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잠재 의식 형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반 조성 역할을 하게되므로 출생 후의 교육은 지식을 축적하는데 비중이 크나 출생전의 교육은 생리적 성장발달에 환경적으로 작용하여 뇌 발달이나 신체발달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품성과 기질을 닦는데까지 크나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4. 태아 지성발달

태아의 지성발달을 위한 행위로는 '동화를 듣거나 읽기' '노래 불러주기' '책 읽기' '좋은 그림 감상' '훌륭한 사람 모습 보기' '피아노 치기' '신선한 공기 호흡' '음악 들기' '신앙생활' '기도' '나쁜 말이나 생각의 통제' 등의 11개 있다. 이러한 행위를 한 결과 이퇴계등 수많은 위인을 출산할 수 있었다는 사례를 사주당 이씨가 경험적으로 자료로 제시하는 수준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이 대부분 대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김구자, 황애란, 1986) 대뇌의 훈련행동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발달은 양적으로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를 의미하는 성장과 기능의 변화를 의미하는 성숙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연속적이며, 점진적이고, 상호작용하며, 개인차가 있고, 일정한 순서가 있으며, 자발적이고 전진적이며 생활기능의 재체제화 과정(조복희, 정옥분, 유가효, 1989)이므로 유전자에 근거된 발달은 어쩔 수 없으나 환경에 의한 발달은 태아의 환경을 어떻게 조성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의도적인 노력은 중요하다. 인간발달에 대한 환경적 영향은 임신시부터 시작되므로 서양에서 인간의 환경을 출생이후로 보았던 관점에 비하여 태교의 관점은 수태기간을 가장 결정적인 환경적 영향에 취약한 시기로 보고 구체적인 환경조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대운(1989)과 이관용, 김기중, 김재감 및 이태연(1990)과 장대운(1989) 등이 주장 하였듯이 인간발달은 임신에서 시작해서 전 생애를 거쳐 지속되는 전향적으로 진전되는 변화의 패턴들을 일컫는 것이므로 태아기, 아동 전기, 아동기, 청년기, 성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눌 수 많은 발달심리학자들의 발달 단계 제시는 태교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 임부의 태교는 서양에서 설명하고 있는 태아애착 개념이 임부와 태아간의 상호작용의 과정 중심적인 수준을 넘어서 임부가 주도적으로 태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도모하는 다차원적, 능동적, 목적지향적인 자가건강 관리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VI.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임부들이 한국 전통 태교와는 달리 현재 실시하고 있는 태중 교육으로서의 태교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된 탐색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 10개 도시에 소재하는 종합 병원과 조산소에 내원한 임신 10주에서 분만후 3개월 이내의 여성 9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인 태교 질문지의 문항 구성 및 타당성 검증은 관련 문헌 고찰, 20명의 임부와 산욕부를 통해 예비 문항을 작성하고 이를 다시 임부 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하는 과정과 간호학 전공자 10인을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쳐 이뤄졌으며, 이 과정을 통해 형성된 최종 문항은 55문항이었다.

자료 수집 기간은 1995년 2월 10일 부터 3월 30일까지 50일간 이뤄졌으며, 자료 수집 방법은 각 지역의 해당 기관의 관련 간호사, 조산사가 직접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주어 자가 보고하도록 한 뒤 회수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실수, 백분율, 평균, 범위 등의 기술 통계와 태교 구성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varimax회전을 적용한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한국 임신부들이 실행하고 있는 태교의 구성 요인은 '태아 심성 안정', '태아 인성 발달', '태아와의 교감', '태아 지성 발달' 및 '태아의 신체적 건강'의 5요인으로 분류되었다.

2. 이상의 5가지 태교의 구성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정도는 태아 심성 요인이 23.7%, 태아 인성 발달 요인이 8.3%, 태아와의 교감 4.7%, 태아 지성 발달 요인이 4.1%, 태아의 신체적 건강이 3.3%로 전체 변량의 44.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태교의 과학적, 경험적 검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대상자들이 태교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의 심리학등에서는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에 태아기를 넣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

- 는 산전 교육 속에 태교의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시
해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태교중 과학적 요소와 미신적 요소를 구분해내야 한다.
 - 태교중 교육적 요소와 건강관리 요소를 분리해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권영철(1972). 태교신기연구, 여성문제연구, 제2편, 대구 : 효성여자대학.
- 김구자, 황애란(1986). 생리학, 서울 : 고려의학.
- 김기영, 전명식(1989). SAS 인자 분석, 서울 : 자유아카데미.
- 김혜자(1991). 출산부인의 태교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 백명자(1988). 한국에 있어서의 출산 및 육아민속에 관한 모자보건학적 연구. 동경대학교 : 박사학위논문.
- 사주당 이씨(소화 13년 : 1938). 태교신기연해. 유근영 발행. 경북 예천.
- 유안진(1992).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관용, 김기중, 김재갑, 이태연(1990). 심리학 개론, 서울 : 울곡.
- 이동민(1989). 태중교육. 서울 : 명문당.
- 이정섭, 전정자, 유은광(1987). 간호대상자의 문화배경별 임신관리양상의 비교연구. 대한간호, 26(4), 64-75.
- 임동근(1986). 태, 서울 : 우성 출판사.
- 장대운(1989). 인간주의 교육을 위한 현대 교육 심리학, 서울 : 동문사.
- 조동숙(1987). 출산부인의 태교실태와 건강전문인의 태교에 관한 인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사학위논문.
- 조복희, 정옥분, 유가효(1989). 인간발달. 서울 : 교문사.
- 조연희(1993). 우리나라 임부들의 태교에 대한 인식 및 실천도 조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 최경옥(1974). 태교에 관한 탐색적 일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연순, 김현옥(1995). 임신부부의 태교실태조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2), 153-173.
- 한국방송공사(1984). 아기는 초능력, '디오테이프'
- Aslin, R. N.(1985). Oculomotor measures of visual development. In G. Gottlieb & N. A. Krasnegor(Eds.), Measurement of audition and vision in the first year of postnatal life : a methodological overview(pp.391-417), NJ : Ablex.
- Balough, R. D. & Porter, R. H.(in press), Olfactory preferences resulting from mere exposure in human neonate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 Bekoff, A., & Kauer, J. A.(1984). Neural control of hatching : fate of the pattern generator for the leg movements of hatching in post-hatching chicks. Journal of Neuroscience, 4, 2659-2666.
- Bernard, J., & Sontag, L. W.(1947). Fetal reactivity to tonal stimulation :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70, 205-210.
- Birnholtz, J. C.(1984). Fetal neurology. In R. Saunders & M. Hill,(Eds.), Ultrasound Annual, (pp.139-160), New York : Raven Press.
- Bornstein, M. H.(1985). Habituation of attention as a measure of visual information procession in human infants : summary, systematization, and synthesis. In G. Gottlieb & N. A. Krasnegor(Eds.), Measurement of audition and vision in the first year of postnatal life : a methodological overview(pp. 253-300), NJ : Ablex.
- Condon(1993). The assessment of antenatal emotional attachment : Development of a questionnaire instrument, British J. of Medical Psychology, 66, 167-83.
- Cranley, M. S.(1981). Development of a tool for the measurement of maternal attachment during pregnancy. Nursing Reseach, 30(5), 281-284.
- Davis, M. S., & Akridge, K. M.(1987). The effect of promoting intrauterine attachment in primiparas on postdelivery attachment. JO-

- GNN, 16, 430-437.
- Eaton, R. C.(1984). Neural mechanisms of startle behavior. New York : Plenum Press.
- Fentress, J. C., & McLeod, P. J.(1986). Motor patterns in development. In E. M. Blass(Ed.), Handbook of behavioral neurobiology, vol. 8, Developmental psychobiology and developmental neurobiology(pp. 35-97). New York : Plenum.
- Horsburgh, ME., Foley, D. M.(1990). The Phenomena of care in Sicilian-Canadian culture : an ethn nursing case study. Nursing Forum, 25(3) : 14-22.
- Janzen, J. M.(1978). The quest for therapy : Medical pluralism in lower zaire.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eifer, M.(1977). Psychological changes accompanying pregnancy and motherhood. Genet. Psycho. Monogr. 95, 55-96.
- Leiniger, M.(1994). Quality of life from a transcultural nursing perspective. Nursing Science Quaterly. 7(1), 22-8.
- Leininger, M(1991). Transcultural care principles, human rights, and eth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3(1), 21-3.
- Leininger, M.(1991). Culture Care diversity and universalty : A theory of Nursing. New York : National league for Nurses Press.
- Levinson, B.(1993). The rights of the unborn child seen through the eyes of a psychologist. Medicine & Law, 12(6-8), 471-477.
- Meltzoff, A. N. & Moor, M. K.(1985). Cognitive foundations and social functions of imitation and intermodal representation in infancy. In J. Mehler & R. Fox(Eds.), Neonate cognition : beyond the blooming, buzzing confusion(pp. 139-156), Hillsdale, NJ : Erlbaum.
- Olds, S., London, M., & Ladewig, P.(1989). Maternal Newborn Nursing, third edition, California :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Reeder, S., Martin, L., & Koniak, D.(1992). Maternity Nursing, Family, Newborn, and Women's Health Care, Philadelphia : J. B. Lippincott Company.
- Rohrbaugh, J. W.(1984). The orienting reflex : performance and central nervous system manifestations. In R. Pavasuramam & D. R. Davies (Eds.), Varieties of attenuation(pp. 323-373). New York : Academic Press.
- Smotherman, W. P. & Robinson, S. R.(1988). Behavior of the fetus. New Jersey : The Telford.
- Spence, M. J. & DeCasper, A. J.(1987). Prenatal experience with low-frequency maternal-voice sounds influence neonatal perception of maternal voice samples.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10, 133-142.
- Thelen, E., Kelso, J. A. S., & Fogel, A.(1987). Self-organizing systems and infant motor development. Developmental Review, 7, 39-65.
- Yoo, Eun Kwang(1993). An Ethnographic Study about Sanhujori(산후조리) The Phenomenon of Korean Postpartal Car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 Doctoral Dissertation.

- Abstract -

Key concept : Taegyo, Pregnant Women, Folk Behavior

Factors of the 'Taegyo' of Korean Pregnant Women

- Self Care of Pregnant Women Based on Oriental Folk Behavior -

Chang, Soon Bok · Park, Young Joo**
Choi, Youn Soon* · Chung, Chae Won**

All human health behavior is deeply rooted one's beliefs or value system usually encompassed within the culture in which they live. The Taegyo, based on Oriental folk medicine, is defined as the behavior and self care of pregnant women administered for herself and her fetus (unborn child). Taegyo is believed to be desirable, effective, and healthy behavior by most of Korean pregnant women. It is essential in our contemporary culture, to ascertain what the components of Taegyo are and to integrate them into current, western nursing care, particularly in the area of prenatal care. 910 Korean women we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ho were in a gestation period of pregnancy between 10 weeks to three months postpartum.

The subjects were selected by clustered sampling

from 10 representative cities in Korea. Data was collected from February 10 to March 30 1995 by a constructed questionnaire which consisted of 95 items. The questionnaire was developed through three steps such as content analysis, calculation of content validity index, and pretest.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rotated matrix factor analysis with pc-SAS. The mean age of the subjects was 28.9 years : 36.5% of them were employed and the mean income per month was about 2000 dollars. The component of Taegyo was clustered into five factors such as fetus psychological stability (equity), fetus personality development, maternal - fetal interaction, fetus intellectual development and physical health promotion.

The variance of each factor were 23.7%, 8.3%, 4.7%, 4.1%, and 3.3% respectively in that order. The Eigen value of each factor was 13.03, 4.57, 2.60, 2.23, and 1.83 respectively.

It was found that the Taegyo is an unique and holistic self care behavior of Korean pregnant women.

Therefore it has been concluded that this study has broadened the understandability of the implications the Taegyo.

It is suggested that further studies on the effects of the Taegyo are needed to provide a scientific basis for professional maternity nursing.

*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Korea Tel : 82-2-361-5135, Fax : 82-2-392-5440
** Nursing Department, Korea University